

우리알처럼 빛나는 버블 속, 달을 듯 말 듯 꿈같은 찰나의 순간

전소민(레드엘갤러리 큐레이터)

누구에게나 깊숙한 어딘가에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분명 있었던 사실이지만, 지금은 안개처럼 흩어져버린 장면들 말이다. 간절히 원하지만 손에 닿지 않는 그렇지만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비눗방울 속에 녹여내, 영원히 새겨 두고 싶은 기대감을 캔버스에 담아낸 것은 아닐까.

버블 속으로 시간여행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꿈 많고 엉뚱한 상상을 하던 어린 시절은 있었다.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나 만화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이 되길 희망하며 행복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의 인생에 힘든 실연 따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 우화로 푹푹 몽쳤던 적도 있었다. 뚜렷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을 ‘비눗방울’이라는 소재에 적절히 스며들며, 잠시나마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대상(작품)이 있다. 그의 비눗방울에는 따스한 매력이 추억을 불러 들였다. 어쩌면 흐릿한 기억들이 비눗방울처럼 특하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 기억을 되새기는 순간만큼은 잠재되어있던 순수한 희망과 꿈들이 버블 속에 공유된 느낌을 받는다.

매끄러운 터치감에서 오는 사실적 화면

터치감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끈한 화면은 마치 카메라 초점을 비눗방울에 두고 촬영한 사진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자칫 디아섹액자를 보는 듯 하다. 하지만 자꾸만 작품 앞으로 다가서게 하는 묘한 끌림이 있다. 그만큼 작가의 표현력은 뛰어나고 섬세하다. 그 표현력과 유화만이 낼 수 있는 특성이 만나, 작가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 더 없이 완벽해 보인다. 특히, 작품을 끝낼 때는 글로스 바니시 처리를 통해 광택감을 부여해줌으로써 이미지는 생생하고 더욱 사실적으로 시선을 압도 한다.

이중적 간극

어딘지 모를 흐릿한 배경과 극대비되는 사실적 버블의 묘사는 강한 대조를 이루며 온통 화면 속 비눗방울로 시선을 집중케 한다. 이렇게 잡힐 듯 사실적으로 그려진 영롱한 버블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의 이미지는 빛에 의해 형형색색의 색채로 왜곡되어 의미 없는 무늬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 곳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렁이며 생성한다. 마치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사실이지만 현재는 흐릿하게 남겨진 순간들, 되찾으려 다가서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아슬아슬한 기억의 편린들을 양산하듯 동적 대상이 되어준다. 여기에 달을 듯 말 듯 한 버블에 이입해 들여다보면 작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곧 소멸해버릴지 모르는 영롱한 비눗방울과 닮은 아름다웠던 찰나의 순간을 그림 속에 고정하여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전시 'blinding memory'에서는 이용제 작가의 작품과 마주했을 때, 삶 속에서 크고 작았던 빛나는 순간들을 다시금 꺼내보는 마음의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 것이 꼭 특별하고 화려한 일상이 아닐지라도, 소소한 삶 속에서 얻었던 기쁨과 감사, 더없이 투명했을 어릴 적 모습의 기억들을 관람자들도 비눗방울 속에 담아보며, 마음 한 쪽에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돌아가길 기대해본다.